

미국사회복지사협회, 대중교육캠페인 통해 사회복지사 이미지 개선

글 : 이혁준 객원기자

정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홍보국



▲ NASW Elvira Craig deSilva 회장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NASW)는 1955년 설립된 이래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15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NASW는 대중교육캠페인을 통해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널리 알려 협회 및 사회복지사들의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호 Social Worker에서는 NASW 회장 Elvira Craig deSilva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NASW의 모습을 담아보고자 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제시한 NASW와의 인터뷰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서면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deSilva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Q1. 인터뷰에 가까이 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NASW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SW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사 회원단체로서 현재 회원이 15만 명에 이른다. NASW의 주요활동으로는 회원들이 전문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업 기준을 개발하며 유지하는 것,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NASW는 또한 옹호 활동을 포함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개인, 가족, 공동체의 안녕에 공헌한다.

NASW는 총 56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내 50개 주의 지부 외에도 푸에르토리코 지부, 괌 지부, 버진아일랜드 지부, 국제 지부 등이 포함된다.

선임된 대표단은 NASW 조직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선임된 이

사회는 협회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각 NASW 지부는 직원, 이사회,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위원회, 협회의 미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가지고 있다.

Q2. 회장님께서 2005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해 오고 계신데 회장 당선 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NASW의 활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NASW는 사회복지 전문직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입법 활동 및 공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대중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며 모든 주에서 사회복지 규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SW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중교육캠페인을 시작했다. 대중교육캠페인의 목적은 첫째,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둘째,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며, 셋째, 누구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젊은 이들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갖게 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고용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NASW는 매년 다양한 학술참고문헌, 계간지, 연구초록, 월간신문 등을 발행한다. 이와 더불어 실천 정보 업데이트, 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출판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 전문직을 널리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NASW는 전국적인 사회복지 대중교육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이 캠페인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중요한 직무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이 또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Q3.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처우개선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디. 미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어떠한지, 이와 관련하여 NASW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속한 국가나 사회복지체제와는 별도로 동일한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과중한 업무, 부족한 자원, 낮은 임금 등이 지속되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미 의회 등에서의 옹호활동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로는 전문자격증제도, 전문실천영역 개발,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개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험제도 운영, 윤리강령 및 직업기준 마련 등을 통한 전문직으로의 발전, NASW 뉴스 및 사회복지저널 발간 등을 통한 최신정보 제공을 들 수 있다.

Q4. 한국에서는 일반대중의 인식이 사회복지사를 자원봉사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NASW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중교육캠페인을 시작했다. 대중교육캠페인의 목적은 첫째,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둘째,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며, 셋째, 누구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젊은이들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갖게 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고용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공공 아동복지시스템과 관련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우리는 일반인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이 아동 분야 외에도 노인, 건강, 정신건강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음을 알리려고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 시민, 언론매체, 정책 입안자, 고용주 및 사회복지사들에게 올려져질 수 있는 대규모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적인 사회복지 대중교육캠페인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Q5.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NASW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남부 연안, 특히 뉴올리언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카트리나 재난을 통해 빈곤이 이러한 재난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훼손하는지를 보았다. NASW는 이러한 재난 시에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동시에 사회복지사들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NASW 재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부 연안의 사회복지사들에

“ NASW는 재난 시에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동시에 사회복지사들 또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NASW 재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부 연안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재난 기금을 만들었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기부금을 모아 기금을 필요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타인을 돕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 세계사회복지사대회에 참가한 deSilva 회장. 왼쪽부터 NASW 전임회장 Gary Bailey, NASW 현회장 Elvira Craig deSilv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

계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재난 기금을 만들었고,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기부금을 모아 기금을 필요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타인을 돕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카트리나 발생 후 몇 주에 걸쳐 피해지역에서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의 전화가 쇄도했다. 우리는 미국적십자사와 협

력하여 임시보호소를 짓고, 의료 활동에 협력하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파견했다.

Q6. 마지막으로 NASW의 국제협력활동, 특히 최근의 협력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SW는 지난 7월 뮌헨에서 열렸던 IFSW(세계사회복지사연맹) 세계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뮌헨세계대회는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빈곤이나 HIV/AIDS 같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에 대한 공통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자리였다. NASW는

전 세계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IFSW에서 공동으로 북미지역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협력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는 등의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